

에너지공기업, 2011년까지 신·재생에너지분야에 3조원 투자

- 2011년까지 총 100MW 태양광시장 신규창출 등 태양광산업 육성방안도 수립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(02-2110-4911)

■ 지식경제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7월 10일,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과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약 3조원을 투자기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(RPA)을 체결할 예정임

* RPA 참여기관 : 한전, 6개 발전자회사(남동·중부·서부·남부·동서발전),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 등 9개사

○ RPA 참여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서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('06~'08년간 6,059억원 투자)과 비교하여 투자규모를 5배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

○ 아울러, 태양광, 풍력,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는 1,330MW 보급할 계획으로써, 이는 참여기관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(201MW)의 6.6배 규모,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(2,292MW)의 58%에 해당하는 수준

- 특히, 2012년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공급의무제도(RPS)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 차원에서, 태양광분야에 대해 3년간 총 102MW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음

* 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s) :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, 태양광의 경우 금번 RPA 협약을 통해 공급하는 실적('09~'11년)을 향후 제도시행시 실적으로 인정

■ 지식경제부는 금번 RPA 협약체결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

○ 참여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.8% 수준에서 2012년 1.7% 수준(당초 투자계획 실행 기준)까지 대폭 확대되는 등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제고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○ 산업형성단계인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등의 육성에 긴요한 내수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

■ 아울러, 지식경제부는 금번 RPA체결을 통하여 내수시장 규모 등 단계적인 시장여건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추어 중요 신재생에너지산업별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로 태양광산업 발전방안 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

① 최근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산업의 성장기반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·제공

-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(RPS) 시행시 태양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
- 2012년부터 할당되는 태양광 의무량중 총 102MW 물량에 대해서 참여기관들이 2011년까지 미리 보급할 경우 先 보급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후 실적으로 인정
- * 연차별 투자물량(RPA기관 계획) : ('09) 21MW → ('10) 32MW → ('11) 49MW

② 태양광보급이 국내산업 육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급제도 개선

-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체계를 개편하여 소용량·건물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대 유도

〈기준가격 체계 개편(안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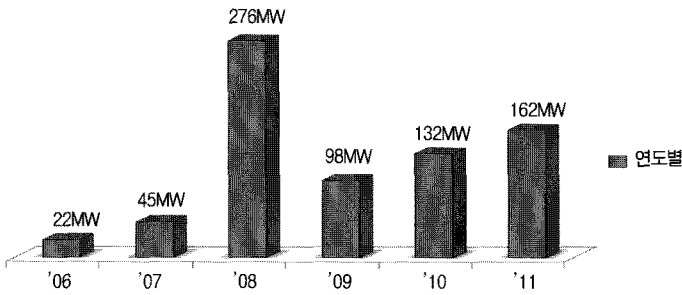
구분	현행	변경(안)
분류체계	• 용량구간(5개구간)별 기준가격 차등	• 설치장소(건물, 대지) 등에 따라 기준가격 세분화 추가
기준가격	• 소용량 우대	• 소용량·건물형 우대

③ 차세대 전략제품 공동 개발 및 사업화유도 등 통한 산업의 Value-Chain 강화

- 박막형 태양광 등 차세대 전략제품에 대해서 태양전지社·장비제조社(예시) 공동 SPC 설립·참여 대형 R&D 프로젝트 추진

◎ 특히, 지식경제부는 이번 RPA협약 및 RPS 시범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및 연차별 발전차액지원 용량 등을 모두 합할 경우 2011년까지 매년 안정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추세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태양광시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음

* 신규시장 창출전망 : ('09) 98MW → ('10) 132MW → ('11) 162MW



〈국내 태양광시장 추이 및 전망〉

-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은 RPA 체결식에 이어서 개최될 “그린홈 제로하우스”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임
- ◎ 이날 개관될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(Active), 친환경·고효율 건축자재 및 고효율 전자제품(Passive) 등을 총 동원하여 미래형 저탄소 주택을 실물크기로 구현
- ◎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잠재적인 수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, 국립과천과학관 관람객(과학관내 위치)에게 개방될 예정